



## INNOVATING TODAY TO DESIGN A BETTER TOMORROW

SIMPAC메탈은 국내 최초 합금철 개발, 생산의 60여년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합금철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SIMPAC메탈은 해외신규시장 개척, 사업 포트폴리오 진화를 통해 '중저탄소 페로망간 글로벌 TOP 5'를 목표로 글로벌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SECURING LEADING MARKET SHARE IN GLOBAL FERROALLOY MARKET

SIMPAC메탈은 끊임없는 개선으로 합금철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 CHALLENGE 도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열정



### CREATIVITY 창의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을  
추구하는 성장에너지



### HAPPINESS 행복

고객과 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



### COMMUNICATION 소통

상호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아름다운 동행

[www.simpacmetal.co.kr](http://www.simpacmetal.co.kr)

포항1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53 TEL 054) 271-8700  
당진공장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438 TEL 041) 360-0100

 **SIMPAC 메탈**

# 심팩스토리

SIMPAC STORY 2018 SPRING VOL.42



 대한민국 철강의 중심에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하다

 **SIMPAC**

# 심팩 스토리

SIMPAC STORY  
2018년 SPRING

통권 42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8년 6월 25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용기 대리

02-3780-4923

wklee@simpac.co.kr

이준수 대리

032-590-2022

jsulee@simpac.co.kr

(주)SIMPAC

이혜정 대리

032-510-0022

hjlee@simpac.co.kr

(주)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주)SIMPAC메탈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kr

이준기 과장

041-360-0122

jklee@simpac.co.kr



## SPECIAL THEME

- 06 **THEME ESSAY**  
키워드로 살펴보는  
2018 합금철 트렌드
- 08 **THEME STORY**  
합금철 시장의  
미래를 미리 보다



## SIMPAC IN

- 10 **SIMPAC NEWS**  
SIMPAC그룹 소식 /  
ZOOM IN
- 18 **현장을 가다**  
환상의 케미로  
현장의 진가를 맛보다
- 24 **오늘은 제가 씁니다**  
팀원들 몰래 설계한  
'깜작 힐링 타임'
- 28 **SIMPAC SURVEY**  
우리 함께  
봄을 한껏 누리 봄
- 30 **기획칼럼**  
#2 슬기로운 직장생활



## SIMPAC 人

- 32 **SIMPAC CREATOR**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공무파트 유병찬 선임
- 36 **위라벨 프로젝트**  
2탄 Traveling Life
- 40 **가족과 함께**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
- 42 **편지왔습니다**  
SIMPAC인이 전하는 마음
- 44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 45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SPECIAL THEME

## 글로벌 종합 합금철 기업을 향해 나아갈 통찰력을 얻다

SIMPAC메탈은 미래가 변화할 방향,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할 기술의 내일을 내다보고 두려움 없이 실천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 온 SIMPAC메탈, 다시 한번 선두에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호 스페셜테마 섹션에서는 앞서 내다보는 통찰력, 앞서 실천하는 실행력으로 시장을 한발 앞서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SIMPAC메탈의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먼저, 테마에세이에서는 합금철 시장 트렌드를 5개 키워드로 선정하여 SIMPAC메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며 이어서 테마스토리에서는 '제 19회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 참가하여 광석 및 합금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회사의 영향력과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되짚어 봅니다.

THEME ESSAY

# 키워드로 살펴보는 2018 합금철 트렌드

# ferroalloy trend

세계 합금철 시장이 오랜만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SIMPAC메탈이 정상급 합금철 생산 기술력을 토대로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방심할 순 없다. 합금철 시장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지금의 성장곡선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준비했다. 5개 키워드로 합금철 시장 · SIMPAC메탈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2018 합금철 트렌드'.



KEYWORD 01

## SIMPAC메탈의 최대실적



SIMPAC메탈이 올 1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 · 영업이익 ·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 121% · 117% 증가했다. 호성적을 견인한 주요 이유는 합금철 가격 상승과 광석 가격 하락이다. 1분기 합금철의 톤당 내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출 가격도 28% 올랐다. 반면 합금철의 주요 원재료인 망간 광석의 톤당 수입 가격은 27% 하락했다. 이 같은 호조세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사상 최대실적의 이유를 '대외적 환경 변화'로만 국한시켜서는 곤란하다. SIMPAC메탈은 오늘날의 성과를 내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합금철 원재료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광석을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구매함으로써 제조 원가를 크게 낮췄다. 여기에 합금철영업팀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 SIMPAC메탈 부서 및 임직원들의 든든한 지원활동까지 더해졌다. 고탄소 페로망간, 실리콘망간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중저탄소 페로망간까지 생산 가능한 SIMPAC메탈의 앞서가는 기술력도 회사의 최대실적을 이끈 원동력이다.

KEYWORD 02

## 중국의 환경규제



전 세계 각국과 모든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환경규제의 강화다. 합금철 업계도 이 같은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다. 환경오염의 가속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스모그 심화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는 것. 작년부터 허베이성 · 베이징 · 천진 등 주요 철강 생산지의 겨울철 공장 가동률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 최대 철강도시인 당산시는 겨울철 감산기를 넘긴 비동절기에도 철강 및 합금철 생산량을 10~15% 줄이고 있다.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하로 줄이지 못한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배출가스 허가제'도 시행 중이다.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의 합금철 생산량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나아가 수요가 생산을 앞지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합금철 가격이 상승했고, 더불어 SIMPAC메탈의 주가도 연말이 높아졌다. 환경규제의 수혜를 일정 부분 받고 있는 셈.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EYWORD 03

## 말레이시아 생산량 증가

최근 말레이시아의 합금철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가 실리콘망간을 중심으로 그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의 합금철 감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합금철 산업 약진은 인도 · 우크라이나 · 베트남 등의 수출량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SIMPAC메탈은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내 시장을 최대한 방어하는 한편,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 판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EYWORD 04

## 광석 가격 하락



지난 3월, 홍콩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 (Asian Ferroalloys conference)'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바로 망간 광석 가격의 변동에 대한 전망이었다. 광석 가격이 제조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는 철강 업체들이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의 망간 광석 가격은 그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는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2분기 이후의 망간 광석 가격이 하락할지, 아니면 지금의 고점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망간 광석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놀랍게도 이후의 가격 또한 이 예측에 따라 조금씩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철강 업체들은 지금의 추세가 업계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생각은 SIMPAC메탈 또한 마찬가지다.

KEYWORD 05

## 한반도 철도 연결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이 전 사회적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류를 암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끄는 내용은 도로 및 철도의 연결이었다. 북한의 교통구조가 도로보다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주철중도(主鐵從道)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과정 역시 도로보다는 철도에 더 큰 비중이 실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철도의 연결이 본격화되면, 여기에 투입되는 철강재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9개월 간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를 진행했다. 통일 전에 약 38조 2천억 원을 들여 북한 내 7개 노선을 개량 및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이를 바탕으로 예측한 철강재 수요는 약 9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 활황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합금철 시장도 한층 살아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는 셈이다.



THEME STORY

# 합금철 시장의 미래를 미리 보다

'제19회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 참가기

지난 3월 20일, 제19회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Asian Ferroalloys Conference)가 홍콩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의 합금철 업체, 제강사 및 광석사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2~4분기 합금철 및 망간 광석 시장을 '미리보기'하는 기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과 SIMPAC메탈 송효석 사장 이하 직원들도 합금철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사흘간 분주히 움직였다.



# Asian Ferroalloys Conference

## 홍콩으로 향한 'SIMPAC 원정대'

매년 3월경 열리는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는 2~4분기 합금철과 망간 광석의 방향성을 한 발 앞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국제 행사다. 전 세계 제강사·광석사·합금철 업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시장 정보와 사업 및 협력 논의도 실시간으로 오간다. SIMPAC메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합금철 전문 기업으로서 매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있다. 2007년부터 꾸준히 이름을 올렸으니, 이번 제19회 컨퍼런스까지 합치면 벌써 12번째다.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과 SIMPAC메탈 송효석 사장, 합금철 영업팀 3명, SIMPAC홀딩스 구매팀 3명으로 구성된 일행은 행사 하루 전인 3월 19일 홍콩에 도착, 나흘간의 치열한 일정에 돌입했다. 첫날 저녁 유럽 바이어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고, 다음날 오전부터 인도·터키 합금철 업체들과 모여 2분기 이후 광석 및 합금철 시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행사 이틀째인 3월 21일 오전에는 미국과 유럽의 합금철 바이어들을 만나 비즈니스 관계 확대 방안을 놓고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으며,

오후에는 중국·대만 등에 자리 잡은 아시아 업체 관계자들과 합금철 시장의 현재와 내일을 꼼꼼히 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미국·유럽 제강사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으로 이번 원정의 대미를 장식했다.



## 합금철·광석 시장을 전망하다

작년부터 줄곧 업계 호조세가 이어져 온 만큼, 이번 행사는 사뭇 밝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2~4분기 철강 수급 전망·광석 가격의 변화·합금철 수급 균형에 따른 가격 예측 등 업계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오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고점에 다다른 광석 가격의 향방.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쏟아낸 가운데, 하반기 광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작년부터 이어져 온 업계 성장곡선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광석 가격의 하락세에 따라 제품 가격 또한 떨어질 것이라는 것. 더불어 전문가들은 최근 약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합금철 업체들의 공격적인 판매 정책이 이를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정부의 철강재 덤핑관세 부과·광석 가격 변동성·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도 변화 등 시장의 불확실한 요인들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가한 우리 임직원들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SIMPAC메탈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다가, 호조세 이전의 시간들을 슬기롭게 헤쳐 왔다. 그 과정 속에서 SIMPAC메탈만의 강력한 내공이 쌓인 것은 당연지사다.

## '준비'와 '기술력'으로 그려 온 성장곡선

중국발 환경규제, 합금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합금철 시장은 작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거듭했다. SIMPAC메탈 또한 이러한 상황을 등에 업고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SIMPAC메탈의 값진 성과, 그 이면에는 대외적인 원인 못지않은 대내적 이유와 경쟁력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합금철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다. SIMPAC메탈은 작년 이전부터 시장을 면밀히 분석, 합금철 시장 호조세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다. 원재료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광석 가격이 적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구매함으로써 제조원가를 상당 부분 낮췄다. 합금철영업팀은 판매 루트를 다양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누볐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만든 생산·물류·재무팀의 든든한 지원 사격도 잊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화룡점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다. 다양한 곳에 두루 쓰이는 합금철인 고탄소 페로망간·실리콘 망간 생산은 기본, 부가가치가 높은 중저탄소 페로망간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전 세계 20개 업체만이 생산 가능한 중저탄소 페로망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 이에 따라 SIMPAC메탈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중저탄소 페로망간 글로벌 TOP 5'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어려움을 뚫고 꿋꿋하게 나아가다

올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SIMPAC메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무엇보다 광석 및 합금철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값있다. 이번 행사의 예측대로 망간 광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합금철 관련 업체들을 두루 만나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SIMPAC메탈은 이 같은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문의를 제안을 다수 받았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회사의 영향력과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SIMPAC메탈은 이번 행사의 성과를 토대로 올 한 해 사업 구상을 마쳤다. 상반기에는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익 극대화를, 하반기에는 시장 하락세에 맞춰 제조원가와 판매가 불균형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말레이시아 등 주요 합금철 생산국의 공세에 맞서 국내 시장을 지키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판매 포트폴리오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확실한 시장 전망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미래 청사진을 향해 나아가려는 SIMPAC메탈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

### ASIAN FERROALLOYS CONFERENCE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는 전 세계 합금철 업체 간 소통 및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탄생했다. 올해 행사에는 43개국 230여 개 기업의 관계자 350여 명이 참가, 최신 트렌드와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 SIMPAC NEWS

2018 SPRING



## 채용박람회 참석

(주)SIMPAC은 청년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3개의 채용박람회에 참석했다. 먼저 5월 10일 서울 학여울 세텍(SETEC)에서 개최된 '2018 중견기업 일자리 드림(Dream)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해당 박람회는 (주)SIMPAC을 포함하여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73개 회사와 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 4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기존의 취업박람회와는 달리 국내 첫 AI 기반의 온라인 면접 매칭 시스템을 실시하여 사전에 당사에 지원한 면접자들의 역량 파악 및 AI 면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당사에 대해 궁금증이 있거나 문의가 있는 지원자들과 시간을 가지며 SIMPAC 맞춤형 인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난 15일에는 지역 내 대학인 인하대에서 개최된 '2018 중견기업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현장면접 및 신규채용을 위한 기회를 장을 마련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채용상담과 진로 및 직무 고민 해결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에 인하대 재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당사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관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자리였다. 끝으로 KB국민은행이 주최한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참석했다. 해당 박람회는 단일 규모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만큼 취업준비생과 특성화고 학생, 군인 등 다양한 구직자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우리는 현장에서 다양한 인재들과 입사 상담을 진행하며 (주)SIMPAC의 혁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인재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우리 회사는 이후로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영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 2018 상반기 경영현황설명회 및 호프데이 실시

(주)SIMPAC은 지난 5월 28일, 당사의 주요현황 공유를 위한 2018 상반기 경영현황설명회가 개최되었다.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되는 경영현황 설명회는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주)SIMPAC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경영현황설명회에서는 상반기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발전까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설명회는 최진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영업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당사의 손익현황, 제품 및 기술 개선 추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여러 현안에 대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경험과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사업 정책들과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현황설명회를 마무리한 후, 최진식 회장을 포함한 (주)SIMPAC 임직원들은 1층으로 이동하여 '호프데이' 행사를 즐겼다. 경영현황 설명회를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행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면, 호프데이는 그간에 흘린 땀의 결실을 격려하고 소통 활성화를 위해 기획했다. 이날 치킨과 마른 안주, 맥주 등을 준비해 임직원들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앞서 진행됐던 경영현황설명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최진식 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외 환경 속에서 술한 위기가 따르겠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위기 뒤에 숨어 있는 기회를 다같이 만들어 내자"고 임직원들을 다시 한 번 독려했으며, 다같이 파이팅을 외치며 호프데이를 마무리했다. 우리 회사는 전 임직원과 주요 현안 공유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SIMPAC NEWS

2018 SPRING



## 건강한 소통을 위한 마라톤대회 참가

지난 4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8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해당 대회는 명실상부한 지역 최고의 마라톤 대회로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총 30여 명의 직원과 직원 가족 일동이 참여하였으며, 비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동료, 가족과 함께하는 포항의 물길인 형산강과 송도해변 및 지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한눈에 보고 함께 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개최되어 통일을 기원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또한, SIMPAC메탈은 5월 26일 경기도 하남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제19회 철의 날' 기념하여 개최된 '철강사랑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2004년 이후 14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철강업계 임직원 및 철강가족 등 4,000여 명이 참가하여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주제로 철강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열렸다.

우리 회사는 철강협회 정회원사로, 이번 대회에서는 해당 행사의 협찬사로서 참여했다. 특히 송효석 사장은 철강협회 이사로서 행사에 참여하여 5km 시총 및 경품 추첨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는 서울, 포항, 당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곳에 모여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었다. 평소 유선으로만 업무를 공유하고 자주 만나지 못했던 직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하고, 친선 경기를 펼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날 송효석 사장은 공장과 사무실에서만 보던 직원들과 탁 트인 잔디밭에서 편한 복장을 하고 만나 격 없이 함께 어울려 경기에 참여하였으며, 오늘 보여준 여러분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항상 계속되는 회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 함께하는 삼겹살 DAY 실시

지난 4월 11일,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삼겹살 DAY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임직원 12명을 포함하여 사내협력사 6개 업체, INC 소속 가공 협력사 6개 업체 총 12개 업체 인원 50명이 일과를 마치고 참석하였다.

삼겹살 DAY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시행되며, 이번 행사는 선선한 날씨를 고려하여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각종 채소 썸, 삼겹살 외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막걸리를 준비하여 협력사 직원분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삼겹살 DAY 행사 개최를 통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그동안 서로 간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마음속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 간 애로사항이나 프레스 용접 구조물에 대한 개선 대책 등 상호 간 의견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협력사 직원들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 평소 고민하고,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맘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임직원들은 "이번 행사로 친목과 화합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가족같이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격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 함께 올바른 동반성장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며, 상호발전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준수 대리,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우수상 수상

5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준수 대리가 '꿈과 희망을 대어한 당신! 나와 내 가족의 생명도 대어하시겠습니까?'를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자격증 대여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예방활동을 통해 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총 351편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은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편, 100만원) ▲우수상(2편, 각 50만원) ▲장려상(3편, 각 20만원) 등 총 6편이 선정하여 시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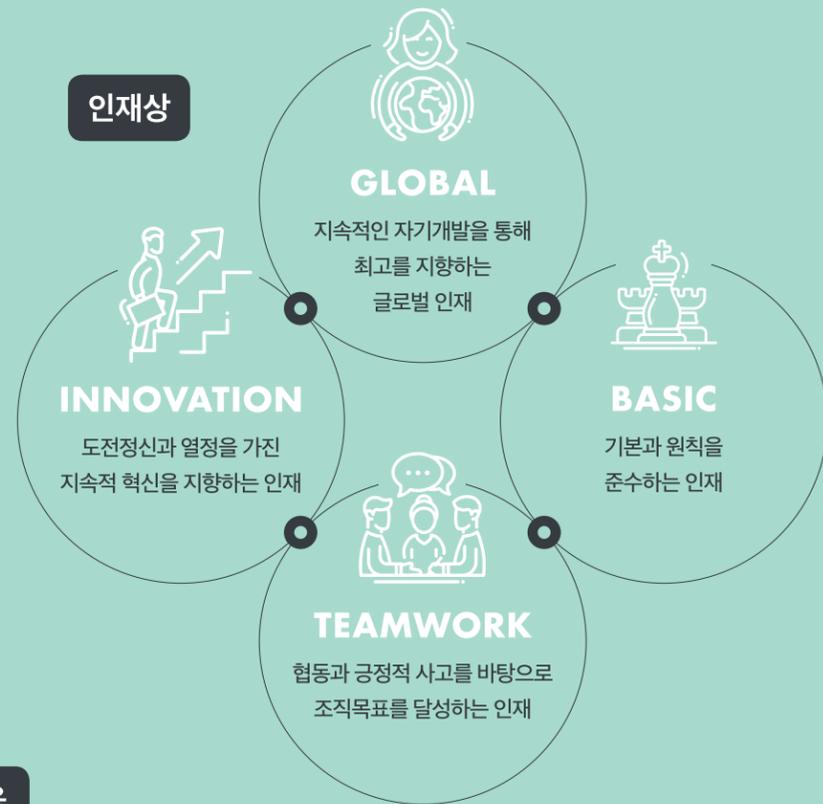
최우수상에는 '자격증 불법대여! 거래가 아닌 범죄입니다' 캐치프레이즈를 제안한 이영철(53세) 씨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이준수 대리 외 '자격증은 기술인의 Pride! 당신의 자부심을 빌려주지 마세요'를 제안한 김도연(25세) 씨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캐치프레이즈는 배너,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자격취득자 보호와 불법대여 예방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준수 대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자격증 대여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바라는 마음에 제안했다"고 "앞으로도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불법대여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식을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SIMPAC News

## Zoom In



### 신규입사교육

- 01 입문교육**
  - 인사제도
  - 조직이해
  - 기본소양교육 (Mind Reset, BIZ예절)
- 02 직무이해**
  - 기본과정(Basic Course)
  - 부서별 입문교육 / 프레스 이론교육
  - 계열사 투어
- 03 직무심화**
  - 직무 심화과정(O.J.T)
  - 직무별 OJT : R&D / 현장 OJT
  - 멘토링제도 운영
- 04 F/U과정**
  - 사외OJT
  - 주제연구발표회
  - 직장인으로서의 재다짐

## ZOOM IN 1



(주)SIMPAC

### 신규입사자 계열사 투어 실시

(주)SIMPAC은 작년 수시 채용을 통해 12 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데 이어, 2018년 상반기에는 1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다. 앞서 선발된 신규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계열사 투어를 진행했다. 4월 27~28일에는 SIMPAC메탈 당진 및 포항공장을 견학하였으며, 30일에는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SIMPAC인더스트리, SIMPAC주물 순으로 투어를 실시하였다.

현장 교육의 일환으로 신규입사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계열사 투어에서는 신규입사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본 자질을 익히고 SIMPAC그룹 계열사의 역사, 경영철학, 조직경영 등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각 계열사를 방문하여 신규입사자들은 현업에 있는 선배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현장 분위기를 익혔다. 단단한 각오와 패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신규입사들에게서 열정 넘치는 심팩인의 모습이 보였다. 현장을 꼼꼼히 살펴며 송준혁사원은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설비와 중장비가 가득한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타 부서 업무와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사내 생산 및 영업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끝으로 앞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할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우리 회사에 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경험을 설명하며 SIMPAC그룹이 이끌 어온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규입사자들은 조직 적응에 도움을 얻고, 더욱 우수한 인재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주)SIMPAC은 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소속감, 자부심 증대를 위해 매년 계열사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채용된 신규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생산팀 김명배 사원

SIMPAC그룹의 일원으로 그룹 내 계열사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보는 공장의 설비들을 보며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대한 선망과 자부심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기설계팀 윤원미 사원

계열사 투어를 통해 평소에 이론으로만 접했던 공정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입사원이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 저도 제 분야에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산팀 정민기 사원

입문교육을 들으면서 느꼈던 바와는 또 다르게 계열사 투어를 통해 현장을 직접 보니 SIMPAC그룹의 대단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조립생산 파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조립파트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회사에 감사함을 느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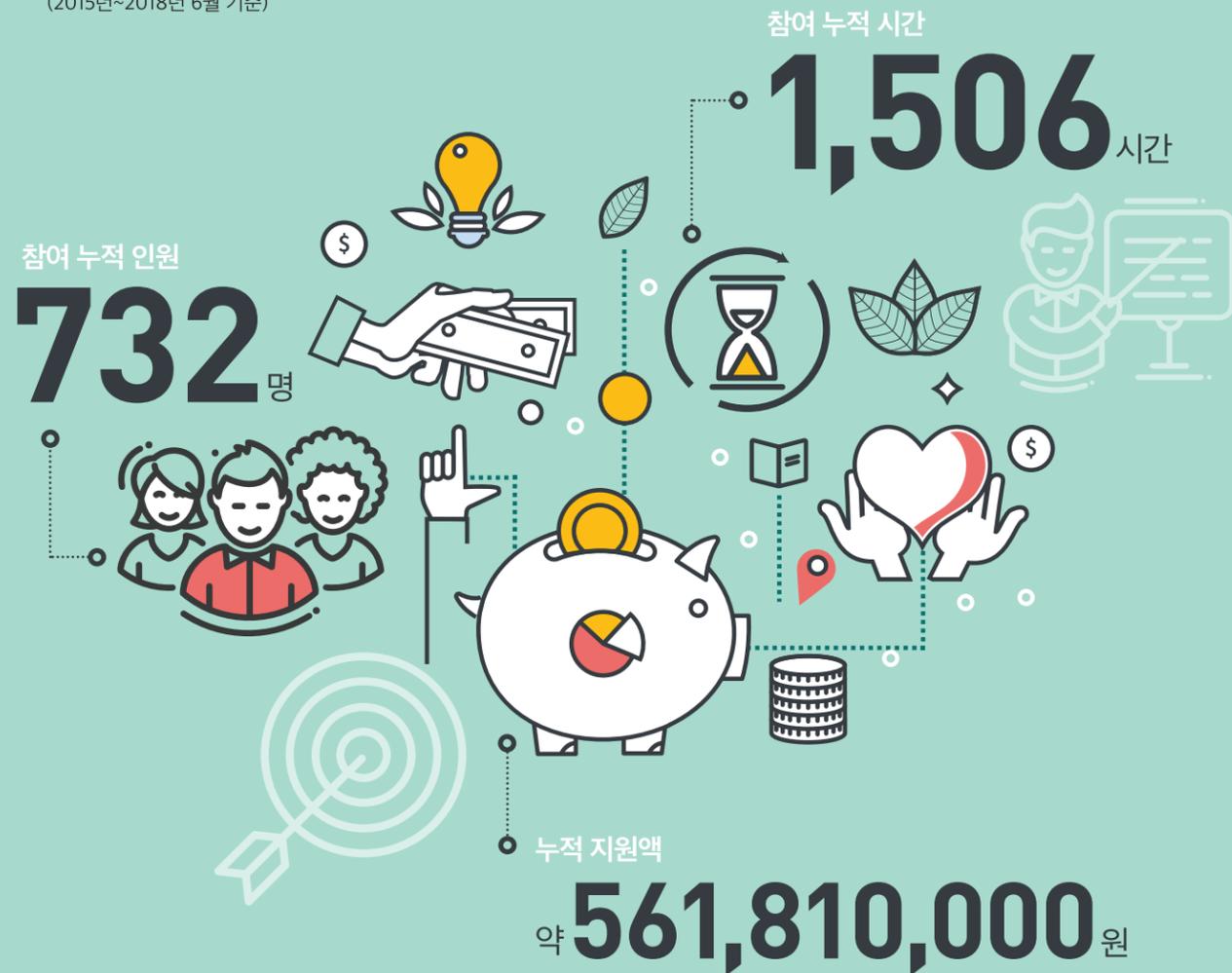
경영지원팀 김다희 사원

신규입사자 계열사 투어를 통해 SIMPAC그룹에 대하여 한층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IMPAC그룹은 국내에서는 이미 최고의 프레스, 합금철전문기업으로서 앞으로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함께할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한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선배님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공장투어를 하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열사간에 서로 도와가며 함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열사 투어를 통해 동기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었고 입사 후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 SIMPAC News Zoom In

## SIMPAC메탈 사회공헌활동 지원 현황

(2015년~2018년 6월 기준)



## ZOOM IN 2 CSR



### '99주년 대호지 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지원활동 실시

SIMPAC메탈 당진공장은 지역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돕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당사의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SIMPAC메탈 당진공장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99주년 대호지 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준비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호지면과 정미면에서 의미가 깊은 행사인 만큼 '함사세(당진공장 봉사단, 함께 사는 세상)' 회원들은 행사를 돕기 위해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한 선열들이 위패가 모셔져 있는 창의사로 모였다.



함사세가 재현행사 지원활동에 나선 대호지 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은 국내 3.1운동의 대표적 독립운동사 중 하나로 대호지면사무소에서 시작해 천의장터에서 격전을 벌인 당진 지역 최대 규모의 독립만세운동이다. 1919년 4월 4일 9시를 기해 600여 명이 대호지면 광장에 모여 사전 계획대로 30자 높이의 대나무에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시작했다. 이날의 항거로 구속 입건된 열사는 400여 명을 넘어섰으며, 현장 학살 1명, 옥중 고문치사 3명, 확인된 수형인 39명, 태형 88명 등이 고초를 겪었다.

현재 4.4 독립만세 운동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당진지역 최대 만세운동이라는 점 외에도 당시 대호지 면장이던 이인정과 대호지면사무소 직원인 민재봉, 송재만, 그리고 지역유지였던 남주원 등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전국 최초의 민·관 합동 항일운동이기 때문이다. 현 대호지면장의 4.4 독립만세운동의 사전 설명을 듣고 난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니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날 재현행사 준비활동에 참여한 함사세 회원들은 조를 나누어 독립운동 참가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위패를 닦고 정리하면서 서로 손발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위패 정리를 마무리 한 후 오래된 미닫이 방문의 한지에 풀을 먹여 새 한지로 붙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 및 주변정리를 끝내고 봉사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또한, 이재남 대호지면장은 수고한 사우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으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뜻깊은 운동을 잊지 않고 되새겨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장진석 부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히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답했다.

SIMPAC메탈 당진공장 가족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류와 상생을 위한 당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직원가족이 함께하는 영화관람 행사 실시

우리 회사는 사회공헌이 기업과 지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가치창출활동이라는 일념 하에 지역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 다양한 후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있다.

지난 5월 2일에는 어린이 날을 맞아 SIMPAC메탈 포항공장 사내봉사동호회 '심봉사'에서 후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직원가족 100명이 포항 CGV에서 만나 함께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관람을 진행하였다. 예상 인원과 달리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어 영화관을 2곳으로 나눠 관람하였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활동이었다.

이번 행사는 아동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으며, 오랜만에 나서는 영화 관람에 한껏 들뜬 아이들과 평소 보고 싶었던 신작 영화를 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날 해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을 못한 송효석 사장을 대신해, 영화관 두곳에서는 각각 김대우 이사와 박승배 이사가 직원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이 어린이들 마음속에 즐거운 추억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포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김경희 회장은 "나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SIMPAC메탈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밖에도 SIMPAC메탈 포항공장은 꾸준히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히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환상의 케미로 현장의 진가를 맛보다

진광재 과장 |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문민수 사원 |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김유림 사원 |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우리 현장에 관심을 가져줘서 기쁩니다. 오늘 이곳의 세 가지 매력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현장은 어떤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자세히 봐주세요.  
진광재 과장(안내자)

이번에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구동부와 기어류, 프레스 외 제품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문민수 사원(탐방자)

오늘이 너무 기대됩니다.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익힌 지식을 총동원해서 꼼꼼히 둘러 보려고요. 특히 Mixing mill의 구동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유림 사원(탐방자)

참 달라 보였다. 생김새부터 말투와 행동까지 눈에 보이는 건 모두다. 님은 거라곤 심팩맨이라는 소속과 깔끔하게 갖춰 입은 작업복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같은 팀이라 해도 좋을 만큼 손발이 척척, 마음이 착착 맞아 들었다. SIMPAC인더스트리 구석구석을 안내하겠다는 이와 현장의 모든 것을 담아가겠다는 이의 만남은 특별했다.

## # 두근두근 기대 만발의 현장

돋보이는 기술력과 남다른 품질로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고 있는 SIMPAC인더스트리. 이곳에는 얼마나 진한 땀방울이 배어 있을까. 그 답을 찾자 세 사람이 얼굴을 마주했다. 누구보다 반갑게 탐방자를 맞이한 건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진광재 과장. 19년 차 베테랑의 인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다. “우리 현장에 관심을 가져줘서 기쁩니다. 오늘 이곳의 세 가지 매력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현장은 어떤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자세히 봐주세요.”

기대했던 인사였나 보다. 아직은 풋풋함을 잃지 않은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2년 차 김유림 사원이 활짝 웃음을 보였다. 그는 작년 여름, 납품한 기계의 A/S를 위해 처음 이곳을 찾았다. 당시에는 프레스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공정에 대해 알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기대됩니다.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익힌 지식을 총동원해서 꼼꼼히 둘러보려고요. 특히 Mixing mill의 구동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문민수 사원은 4년 전 신입사원 OJT를 통해 이곳을 경험했다. 그때만 해도 실무지식이 미비해 현장은 그저 신기하고 낯선 공간이었다. 단계별 공정을 보면서도 적용되는 메커니즘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구동부와 기어류, 프레스 외 제품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 # 궁금하다면 이틀처럼 뜨겁게



SIMPAC인더스트리의 생산현장은 총 다섯 개의 공간으로 구분돼 있다. 진광재 과장은 그중 가장 중심부로 두 사람을 이끌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들로 가득한 공간답지 않게 밝고 따듯했다. 채광창으로 들어치는 햇볕 아래의 세 사람은 한 팀처럼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오직 기계뿐. 대형 기계에 쓰이는 오일공급 장치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탐방에 들어갔다.

쇠의 마모를 방지하는 기술적 장치를 거쳐,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 관한 질문과 답이 쏟아졌다. 이제 걸음을 떼나 싶었더니 어느새 문민수 사원이 되돌아섰다. 고무의 믹싱공정이 궁금한지 고무원료 혼합기인 리더 믹서기를 떠나지 못했다. 덩달아 진광재 과장의 설명도 쉴 새가 없었다. 마치 수업이 한창인 교실 같았다.

“늘 프레스만 다루다 이렇게 새로운 기계와 부품들을 보니 무척 흥미로워요. 흔하지 않은 기회라 자꾸 뭔가를 적게 되고요. 기계의 각 부분이 하나로 조립되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형기기 조립이 완성되면 꼭 좀 불러주세요.” 설명을 듣는 내내 바지런히 펜을 놀리던 김유림 사원은, 기계마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마치 기억의 카메라로 찍어 머릿속에서 분류라도 하는 듯했다. 김유림 사원이 메모 파리면 문민수 사원은 체험 파였다. 눈과 귀로는 부족했는지 양손 가득 기계의 감촉을 담아냈다.



## # 현장에서 찾은 인간적 시너지



“이 기계가 바로 카렌더입니다. 고무 시트의 두께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두 사람한테는 더욱 반가운 기계가 아닐까 합니다. 카렌더의 일부 부품이 ENG에서 생산됐거든요.” 진광재 과장의 말에 기계 쪽으로 한발 다가서는 두 사람. 어떤 부품인지 찾기도 하는 건지, 눈빛이 한층 진지해 보였다.

금호 타이어와의 약속된 납품 일을 앞두고 포장에 들어간 언더믹서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기계 위에 믹서를 설치해 고무를 내려보내면, 언더믹서의 스크루가 혼합을 시작한다는 설명. 마치 로봇의 무쇠 팔처럼 강인해 보이는 모양새가 인상적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감속기와 기어를 만드는 가공설비 기기로 마지막 걸음이 이어졌다. 현장 한쪽은 오버홀(overhaul) 작업으로 분주했다. 일일이 기계를 분해해 수리하는 일은 고되지만, 이곳에 게으름이란 없었다. 문민수 사원은 바쁜 현장을 이런 말로 표현했다. “인더스트리라는 단어가 주는 딱딱한 느낌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무겁게 다가왔는데요. 현장을 둘러보니 기계도 사람이 만드는 거더군요. 사람 간의 시너지와 따듯한 손길이 금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까요. 결국, 이곳도 인간적인 공간입니다.”



## # 서로 섞여 같은 쪽으로 흐르는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호흡을 맞춰,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탐방을 끝낸 세 사람. ‘케미가 폭발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모습이었다. 특히 찰진 설명에 칭찬이 쏟아졌다. “가능한 많은 설명을 듣고 싶다는 바람을 꼭 지켜 주었다.”는 김유림 사원과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어 놀랐다.”는 문민수 사원. 두 사람의 인사에 진광재 과장은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과는 업무적인 상호관계라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일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대형기기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쉬웠지만요. 다음에는 대형기와 자동용접기까지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물줄기가 섞여 흐름을 뜻하는 말, 교류. 또 다른 심팩맨에게 내가 땀 흘리는 공간을 보여주는 일은 얼마나 멋진가. 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속사정까지 헤아릴 수도 있을 테니. “과장님의 설명을 들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조그만 부품도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그냥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중요한 요소였죠.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심팩의 귀한 구성원인 것처럼요.” 문민수 사원의 말에 두 사람의 한마디가 더해졌다. 이제 달라질 거리는 기대로, 활력을 충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보자는 격려. 숨어있던 공정 에너지까지 끌어내는 현장 탐방은 이렇게 달콤했다.



# 82년 노하우로 다시 한번 날아오르다

말 그대로 우공이산의 정신이었다. 사방이 칠백 리, 높이가 만 길에 달하는 큰 산에 길을 내려 했던 백발의 노인. 그가 품었던 불굴의 의지에 견주어도 SIMPAC인더스트리 82년사는 절대 뒤지지 않을 테다. 관련 산업의 선봉장으로 승승장구할 때도, 세계를 휩쓴 불황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만족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해 피와 땀, 눈물을 쏟아왔다.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목표로, 현대판 우공이산을 쓰고 있는 SIMPAC인더스트리. 그 치열한 도전을 생산팀 이성근 팀장에게 들었다.

이성근 팀장 |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 Q. SIMPAC인더스트리 82년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멈추지 않고 내일을 향해 계속 걸어왔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SIMPAC인더스트리의 전신이 봉신 주작소가 설립됐던 193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어왔습니다. 우수한 주조 기술력으로 주목 받았던 시절도,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스러지는 절망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도, 냉정한 고객의 마음을 되돌리려 했던 고군분투도.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며 자극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SIMPAC인더스트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목받을 가능성. 그것이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온 이유입니다.

## Q. 위기상황에서도 전진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SIMPAC인더스트리는 산업기계와 감속기, 부품 등 여러 분야에 고품질 주물을 공급해왔습니다. 특히 타이어, 개스킷, 벨트, 호스, 오일 실, 광고용 필름, 데코타일 등 자동차의 필수품을 생산하는 설비의 제작·공급업체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품질 높은 설비를 공급하면 최종 생산물인 자동차의 품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또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생산에 한몫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으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 금호, 넥센 타이어와도 돈독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 중이고요.

몇 년 전부터 흔하게 들어온 얘기 중 하나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일 겁니다. 마냥 훈풍만 부는 산업이 어디 있겠느냐 마는요. SIMPAC인더스트리와 같은 제조업체가 받은 타격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고무와 PVC 산업의 위축으로 고객은 새로운 설비를 들이기보다, 오버홀

(overhaul)로 설비투자를 최소화했고요. 자연스레 회사의 수주율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사명감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전 부서 모든 직원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높이뛰기를 위한 숨 고르기부터 착실히 해내겠습니다.

## Q. 숨 고르기 중이라니, 펀치를 치려면 한발 물러서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든든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간의 기술력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지닌 인적자원입니다. 덕분에 작년보다 호조세를 보이는 수주율과 국외시장 진출의 청신호라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현재 소규모로 이루지는 국외 수주를 토대로 내년에는 한국 타이어의 헝가리 현지공장 설비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중국 등지에서의 생산도 계획 중입니다.

시장 확대를 목표로 뛰고 있는 영업팀의 노고가 큰 빛을 발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 노고에 발맞춰 설계팀과 생산팀도 유기적인 업무 진행에 필요한 소통과 기술 재정비에 나섰으니까요. 올해가 SIMPAC인더스트리의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 Q.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는 24년 차 베테랑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이곳에서 보낸 세월이 곧 제 삶입니다. 젊은 시절 품질관리 사원으로 입사해, 최고의 품질 전문가를 꿈꾸며 일해 왔습니다. 책에 코를 박아 가면서 또 선배들에게 훈이 나면서 배웠던 모든 것. 거기에 직접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까지 더해져 지금의 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품질은 물론 생산과 구매 관리까지 여러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총괄업무가 쉽지는 않지만, 회사 전 분야를 두루 볼 줄 아는 눈을 키울 수 있어 보람 차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나 자신이 좋은 것보다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수주 경쟁의 입찰가격은 내려가는 데 반해, 물가상승으로 원가를 낮추는 게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그 타개책으로 설비별 프로젝트의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원가확보에 나서기도 했고요. 더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작성을 줄이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조력하고자 합니다.

## Q. 그간 현장에서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요?

현장에서 부딪치는 후배들은 그냥 직원이 아니라 동생이라 여겨왔습니다. 가능한 한 친근하게 다가가려 애썼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힘이 되기도 싶었죠. 녹록지 않은 현장에서 버텨내려면 힘이 필요하니까요. 효율적으로 일하는 힘, 갈등을 조율하는 힘, 기술을 연마하는 힘. 이 힘은 개인의 노력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선배와 동료의 조언과 격려가 있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일일이 가능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힘이 되고 싶었던 바람만큼은 전일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 Q. SIMPAC인더스트리가 완벽히 재도약할 그 날이 기대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할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럼 신바람나게 바쁘게 일할 신규작업이 곧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한술밥 먹는 게 인연인가요? 맞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해주세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받아야 직원도 회사도 발전하니까요. 한 가지 더. 현장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말아야 하는 몫입니다. 동료의 힘들을 보듬어주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날아봅시다!

# 팀원들 몰래 설계한 '깜짝 힐링 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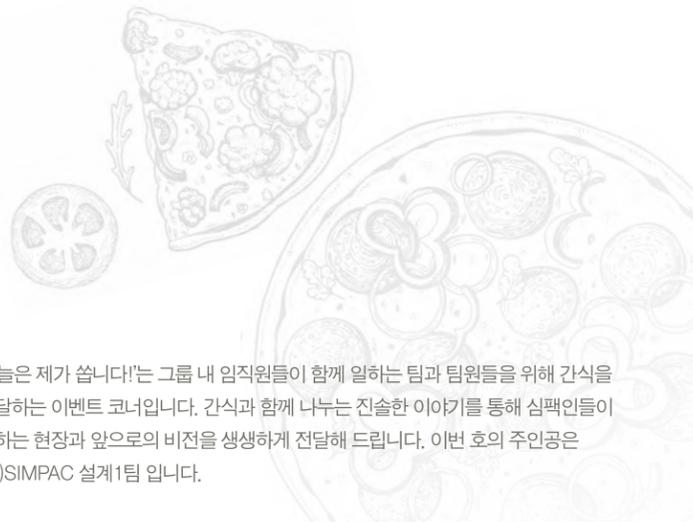
한결 여유가 흐르는 늦은 오후, 긴급회의가 잡혔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긴장한 (주)SIMPAC 설계1팀 직원들, 서둘러 대회의실에 둘러앉는다. 고요한 적막이 흐르던 그때, 문이 벌컥 열린다. "서프라이즈!" 웃으며 등장한 최경수 팀장의 손에는 간식 상자가 가득 들려 있다. 그제야 긴장을 풀고 환호하는 팀원들. 최 팀장이 몰래 설계한 '깜짝 힐링 타임', 이 정도면 대성공이다.



(주)SIMPAC 설계1팀 최경수 팀장



전성현 대리, 김정경 대리, 공상우 사원, 박정수 사원, 황영훈 차장, 최경수 팀장, 김도영 사원 (사진 좌측부터)



'오늘은 제가 씹니다'는 그룹 내 임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팀과 팀원들을 위해 간식을 전달하는 이벤트 코너입니다. 간식과 함께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심팩인들이 일하는 현장과 앞으로의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번 호의 주인공은 (주)SIMPAC 설계1팀입니다.

## 동료들과 함께 맛본 '일상 속 여유'

66  
동료들과 함께 즐긴  
간식 타임!  
유쾌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99



치킨과 피자가 공중을 날아다닌다. 종착지는 곁에 앉은 팀원들의 입안. "맛있다!"와 '엄지 척'이 연신 터져 나오자 최경수 팀장이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한 팀원이 최 팀장에게 피자 한 조각과 콜라 한 잔을 함께 내밀며 말한다. "팀장님도 같이 드셔야죠!" 하나로 연결된 두 사람의 눈빛에서 따스함이 오간다. 설계1팀은 이런 팀이다, 나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팀원들은 하나같이 서로가 서로를 챙긴다. 그러다 보니 소외되는 직원 한 명 없이, 모두가 설계1팀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날 진행된 최 팀장의 깜짝 이벤트에서도 이런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났다. 간식이 자취를 감출 무렵 모두가 부른 배를 두드렸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간 밀린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팀원들과 함께 수다 행렬에 동참하던 최 팀장이 대화와 대화 사이의 여백을 푸근한 목소리로 채운다.

"수주분 설계와 개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에, 우리 팀은 늘 바빠요. 팀원들이 때때로 '스파르타'라고 농담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매진하고 있고, 여유가 생겼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챙깁니다. '내 곁에는 항상 나를 도와줄 동료가 있다'는 믿음과 '나는 이 팀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죠."

설계1팀은 고객사가 발주한 프레스의 설계와 심팩 자체 개발 프레스의 설계, 두 업무를 함께 해나간다. 역학을 바탕으로 한 계산식을 활용해 작동성·내구성·안전성 등 프레스의 모든 기능을 충족시키고 이를 도면으로 옮겨야 하기에, 프레스 설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 설계1팀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팀원 8명이 2인 1조를 이뤄 소형, 중대형 프레스 가리지 않고 일당백으로 소화한다. 최 팀장 말마따나 '믿음의 팀워크'와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협업과 성장의 원동력, '자율'

한 팀원이 가까스로 일을 끝낸다. 시계를 보니 벌써 퇴근 시간. 짐을 챙기려다가 문득 옆을 돌아본다. 계산식과 한창 씨름하고 있는 동료의 눈에 들어온다. 손을 멈추고 동료에게 묻는다. "난 뭘 도와면 될까?" 동료가 반갑고도 미안한 표정으로 일 한 토막을 내밀자, 미안해하지 말라는 듯 미소 지으며 일을 받아들인다. 최 팀장 뇌리에 깊이 박힌 '설계1팀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일이 쌓여서 곤란해 하는 팀원이 있으면 저부터 나서서 일을 돕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팀원들 모두 동료가 혼자 일하게 놔두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을 나눠서 해요. 도움을 받은 팀원은 고마운 마음에 기회만 되면 도움을 주려고 하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팀 내에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정착된 것 같습니다. 팀장으로서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요?(웃음)"

최 팀장의 솔선수범과 함께 팀원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설계1팀 특유의 '자율적 업무 스타일'이다. 최 팀장은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칼 같이 지킬 것을 강조할 뿐, 팀원 각자가 업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되도록 관여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정기회의 때도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정도만 파악할 뿐이다. 하지만 그가 부여하는 자유는 방임과는 결이 전혀 다르다.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최 팀장이 나서서 일을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가공해 준다. 팀 선배 직원들도 후배 직원들을 돕고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일이 바쁠 때는 최 팀장과 선배 직원들이 한 발 더 뛰며 교통정리에 적극 나선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니,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발전시킨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말이다.



## 굳은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다

자율적인 업무 분위기가 정착되고 서로를 돕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일은 힘들지언정 설계1팀에는 늘 봄바람처럼 훈훈한 기류가 감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되 쓸모없는 격식은 과감히 생략하는 열린 소통이 이뤄진다. 비뻔 외중에도 짬을 내어 간간히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가진다. 최 팀장도 소위 '번개'를 종종 제안하며 팀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려 노력한다고, 이렇게 켜켜이 쌓인 팀워크는 특히 힘든 순간 더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작년 여름에 수주분 설계가 엄청나게 몰렸어요. 덕분에 팀원 모두 두세 달 동안 평소 업무량의 2배 이상을 일해야 했죠.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불멘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더군요. 일손이 부족할 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말이죠. 이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팀워크를 위해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간식을 가운데 놓고 한참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이야기는 어느새 설계1팀이 맡은 일 쪽으로 흘러갔다. 수주분 설계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과, 설계1팀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회사 차세대 프레스 'MC2 라인'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이모저모가 오갔다.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소식의 연속. 하지만 팀원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쯤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어느 누구도 화기애애한 온도를 냉탕으로 바꾸려 들지 않았다. "어차피 바쁜 건 매한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 난관을 헤쳐 나갈 동료가 있다는 것, 그 끝에서 '한층 성장한 나'와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한 팀원이 호기롭게 이야기하자, 최 팀장과 팀원들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이지 놀라운 정도로 단단한, 동료와 자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 이것이 바로 설계1팀이 갖춘 최고의 경쟁력이 아닐까.



66 전성현 대리

생산팀에서 설계1팀으로 옮긴 지 어느덧 4개월째인데요. 언제나 솔선수범하시는 팀장님과 늘 살갑게 대해주는 팀원들 덕분에 팀에 잘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모두가 하나 되는 팀으로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99



66 공상우 사원

회사가 소집됐다기에 '큰일(?)이 터졌구나' 걱정했는데, 팀장님이 마련하신 깜짝 이벤트여서 다행입니다! 팀장님 덕분에 정말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억을 발판 삼아 더욱더 노력하고 성장하는 팀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99

# Hello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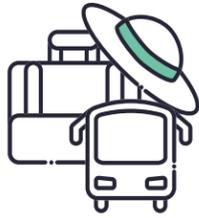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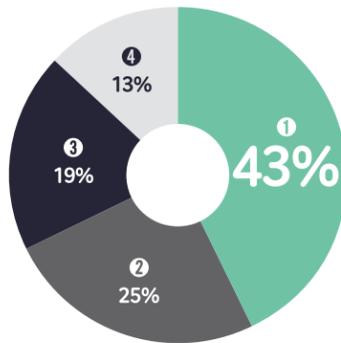
## 우리 함께

설문기간  
5월 8일 - 5월 11일

### 봄을 한껏 누리려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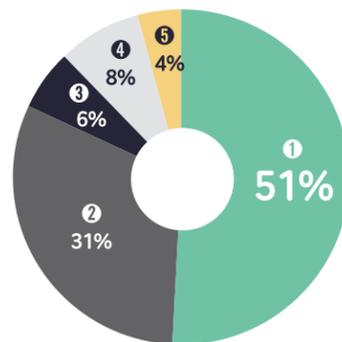
완연한 봄이 여름을 빨리 오라 재촉하듯 점점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야속하게 떠나는 봄이 아쉽지만 아직은 따뜻한 햇살 아래 자그마한 일에도 기분 좋아지는 날씨인 만큼 심팩인들의 일상을 리프레쉬(Refresh) 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심팩인들은 어떻게 봄을 즐기고 있을까요? 사내 설문조사를 통해 봄을 맞이한 심팩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본 설문은 총 134명의 SIMPAC인들이 참여한 결과입니다.

### 01 봄나들이 계획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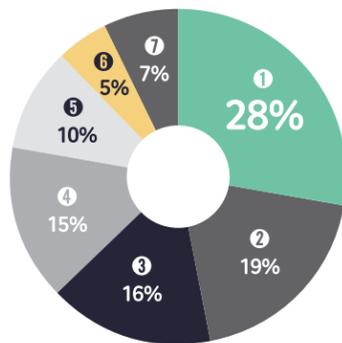
- 1 그렇다 43%
- 2 없다 25%
- 3 이미 벌써 다녀왔다 19%
- 4 아직 잘 모르겠다 13%

### 02 즐거운 봄나들이 누구와 떠나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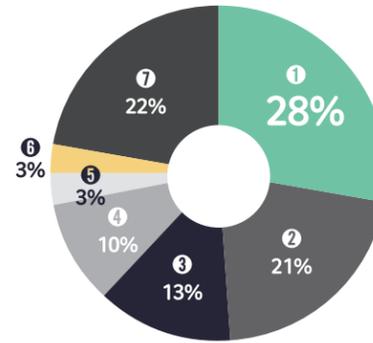
- 1 부모 혹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 51%
- 2 배우자, 연인 31%
- 3 친구 6%
- 4 혼자 8%
- 5 기타 4%

### 03 이번 봄나들이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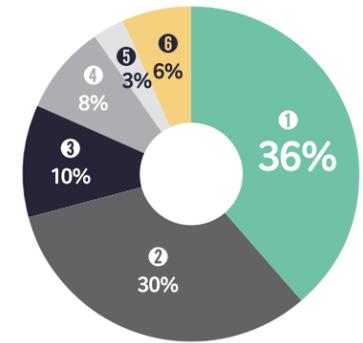
- 1 식욕 도는 봄에는 역시 먹방 여행 28%
- 2 호텔에서 즐기는 힐링, 호캄스 19%
- 3 감성 충전을 위한 꽃 구경 16%
- 4 나른한 햇살을 만끽하며 걷고 느끼는 문화 체험 15%
- 5 본격 아웃도어 체험! 캠핑 여행 10%
- 6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등산 7%
- 7 기타 5%

### 04 흥나는 봄나들이를 위해 함께하고 싶은 노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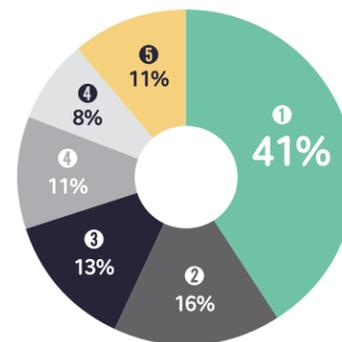
- 1 벚꽃엔딩 - 버스커버스커 28%
- 2 봄봄봄 - 로이킴 21%
- 3 봄, 사랑, 벚꽃 말고 - HIGH4&아이유 13%
- 4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 이문세 10%
- 5 봄처녀 - 가곡 3%
- 6 봄이 오는 길 - 박인희 3%
- 7 기타 22%

### 05 그렇다면 SIMPAC인에게 '봄나들이'가 주는 의미는?



- 1 잠깐의 휴식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기 36%
- 2 몸과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힐링의 시간 30%
- 3 지끈지끈한 스트레스 날려버리자! 10%
- 4 부정적인 생각 Out! 즐거운 여행을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Change! 8%
- 5 색다른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 충전! 3%
- 6 기타 6%

### 06 마지막으로 SIMPAC인이 Refresh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1 격의 없고, 소통 원활한 기업문화 41%
- 2 「힐링연수», 「초청강연회», 「열린음악회」 등 임직원 힐링프로그램의 확대 16%
-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 13%
- 4 임직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운영 11%
- 5 성과 창출 및 역량 개발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 8%
- 6 기타 11%



## 두 번째 이야기 직장 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 슬기로운 직장생활 2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유형만큼이나 직장에도 좋은 관계로 지내기 힘든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거칠게 말하고 탕크처럼 밀어붙이는 형, 은밀하게 빈정거리거나 미묘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형, 느닷없이 벌컥 화를 내는 형,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는 형, 아무 반응이 없이 묵묵부답하는 형, 친절을 남발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형,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꾸물꾸물 형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중에 한 유형 정도는 꼭 있다.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한 사람의 성향이므로 직장동료나 선후배가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직장에서는 이들과 함께 일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먼저 당신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자.



### 1. 긍정적으로 말하라

부정적인 사람은 보통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다. 부정적인 사람의 보고서에는 해결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 가능성이 낮더라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2.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금물!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면 실수를 부른다.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동료의 사기를

꺾을 수도, 심지어는 기밀 정보를 유출하게 될 수도 있다. 말하기 전에 혀를 일곱 번 굴리라는 프랑스 속담을 명심하자.

### 3.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을 정리하라

어떤 프로젝트는 '신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급하게 추진되기 마련이다. 가끔은 그 속도에 발맞춰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일은 결국 성과로 증명하는 법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능성과 계획을 머릿속에 정리하자. 그러면 언행 역시 신중해지며 동료들은 믿음직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 4. 말솜씨보다 말 준비가 중요하다

아무리 말솜씨가 좋아도 즉석에서 연설을 하기는 어렵다. 짧은 스피치라도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스피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얼마나 진행할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한다.



### 5. 품격 있는 글을 쓴다

서류를 작성하던 이메일을 보내던 생각을 글로 표현할 때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요즘처럼 개인의 SNS가 사회적인 파장을 낳는 때에는 개인 블로그나 SNS에 쓰는 글도 생각하며 써야 한다. 요점을 명확하게 하고, 문법과 문맥, 맞춤법을 확인한다. 유행하는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도 주의하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형식, 글꼴, 밑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 [직장인 서바이벌 TIP]

## 직장인을 위한 센스 있는 멘트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때와 장소, 상대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해야 한다. 한 마디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 상황과 상대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멘트를 준비했다. 스트레스는 줄이고, 생존능력을 높여보자!

### (1)상사의 요구를 센스 있게 처리하는 멘트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들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란 말씀이지요?
- 이미 지시하신 다른 일들을 처리 중인데,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는데 이 일을 맡으면 지금 맡은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 (2)사적인 이야기를 피하는 멘트

- 지금 이 업무 처리 때문에 바쁘는데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까요?
- 제가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이야기 하시죠?
-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는 불편하네요. 공과 사는 구분해 주세요.

### (3)업무를 정중하게 부두하는 멘트

- OO씨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일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자네한테 맡긴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더군. 중요한 업무를 하나 더 맡을 수 있을까?

### (4)업무를 적절하게 미루는 멘트

- 처리해 드리고 싶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되겠네요, 나중에 논의할 수 있을까요?
- 이 문제는 다음주/다음달/내년 쯤 시간을 정해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COMMUNICATION

## 남다른 관찰력으로 불량률을 밀봉하다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 공무파트  
유병찬 선임

유병찬 선임은 늘 생각하고 관찰한다. 덕분에 그동안 여러 차례 작업 현장을 개선해 왔다. 그중 프레스 구조물의 슬라이드 누유 여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압력 지그’가 특히 의미 깊다. 그의 이름으로 된 특허를 가져다 줬거니와, 슬라이드 검사 시간과 불량률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 동료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는 없을까?”

## 01 누기 검사의 완성도를 높여라

슬라이드는 프레스 구조물 중 하나로, 재료에 압력을 가해 제품을 찍어 내는 구동부다. 프레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량률에 민감하다. 따라서 SIMPAC홀딩스 ENG사업 부문에서는 출하 전 슬라이드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검사하는데, 특히 용접 부위의 누기 여부를 살피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용접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위에서 누유가 발생하면 슬라이드 구동에 커다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병찬 선임이 2014년 9월에 출원하고 다음 해 1월에 받은 특허 ‘압력 지그’는 바로 여기에 쓰인다. 슬라이드에 난 2~4개의 구멍, 즉 슬라이드 포인트를 덮개로 완벽하게 막고 공기를 주입해 용접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다. 사실 이 검사는 유병찬 선임의 특허 취득 이전에도 꼭 진행하고 있었다. 슬라이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었다.

“전에는 누기 검사를 할 때마다 덮개를 슬라이드 포인트에 직접 용접했습니다. 둘을 용접하고 공기 주입구를 통해 누기 여부를 파악한 뒤, 용접했던 덮개를 다시 떼어내고 출하해야 했죠. 게다가 용접한 부위의 변형 때문에 한 번 사용했던 덮개는 재사용할 수 없었고, 이 부위의 용접 완성도에 따라 검사 성공률에도 차이가 났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검사였지만 시간과 비용, 무엇보다 동료 직원들의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돼야만 했던,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검사 방법이었죠.”

마침 검사 개선 방법을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허락이 떨어졌다. 슬라이드 누기 검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라는 것이었다. 2014년 8월부터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용접 이상으로 슬라이드 포인트를 완벽하게 막아 줄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 3주간의 작업 끝에 이를 실현시켜 줄 장치, 압력 지그가 탄생했다.

## 02 ‘불량률 0%대’를 실현시킨 압력 지그



압력 지그의 핵심은 슬라이드 포인트 상하에 압력을 가해 구멍을 밀폐시키는 것이다. 슬라이드 포인트 덮개 둘레를 따라 고무 패킹을 붙인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밀봉이 되지 않는다. 유병찬 선임은 슬라이드 포인트 아랫부분에서 덮개를 단단하게 압착시켜 줄 지그를 만들었다. 덮개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지그 한가운데에 볼트를 붙인 뒤, 볼트를 구멍에 끼운다. 그리고 너트와 덮개와 지그를 단단히 체결시키면 고무 패킹으로 인해 슬라이드 포인트와 덮개 사이의 틈이 완벽하게 사라진다. 크기와 방식만 다를 뿐, 압력 밥솥에 무쇠 뚜껑을 체결시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유병찬 선임의 압력 지그로 인해 앞서 언급한 세 요소가 모두 획기적으로 절약됐다. 과거에는 용접을 붙이고 땀 때까지 2~3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단 10분 만에 누기 검사를 마치고 있다.





한 번 쓰고 버리던 슬라이드 포인트 덮개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감사에 들어가는 직원들의 노력도 크게 줄어들었고, 그만큼 감사 완성도가 높아졌다. 슬라이드 출하 속도도 향상됐다. 이 모든 개선 사항은 '슬라이드 불량률 0%'로 귀결됐다. 2015년에는 압력 지그 특허를 받음으로써 개인적인 영광과 전사적인 이익을 모두 취했다. 유병찬 선임의 관심과 아이디어, 업무 추진력이 빛어 낸 값진 결과. 그럼에도 그는 자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를 받는 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며, 압력 지그 개발의 공을 회사와 동료들에게 돌린다.

"아이디어 도출과 제품 설계는 제가 했지만, CAD 도면 제작과 소재 커팅은 박기원 대리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압력 지그가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번거로운 서류 작업과 특허 출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많은 분들의 노고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고마움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 03 낮설게 바라보고 새로움을 창조하다

일상을 다른 시야로 살펴보고 풍성하게 가꾸는 일. 유병찬 선임의 전매특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업무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들 수도 있건만, 그는 처음 입사했을 당시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현장을 돌아본다. 그리고 지금껏 으레 해 왔던 습관의 관성력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이것이 유병찬 선임 특유의 탁월한 업무 자세이자 그를 앞서가게 만드는 최대의 경쟁력이다.

#### '압력 지그' 개발을 통한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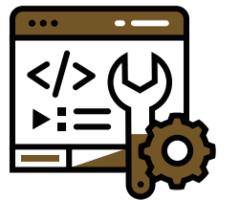
1. 용접 부위의 누기 검사  
최대 3시간 → 최대 10분
2. 슬라이드 포인트 덮개 재활용 가능
3. 슬라이드 출하 속도 향상 ↑

→ 슬라이드 불량률 0%대 달성

0%

특허 취득 후, 그는 슬라이드 포인트 덮개 위에 반달 모양의 인양 고리를 부착함으로써 사람이나 크레인이 무거운 덮개를 쉬이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절반 직원들도 그의 도움을 받았다. 절단장에는 가스 호스, 산소 호스 등 각종 호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절단 시 발생하는 불뚱으로 인해 호스가 자주 손상되곤 했다. 이를 간파한 유병찬 선임은 호스 크레인 제작·설치 작업에 참여해 호스 손상을 막고 직원들의 이동성을 높였다. 용접 선을 걸고 산소 호스를 부착해 작업성을 향상시킨 용접 부스도 그의 작품이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비를 만들어 보급하다 보니, 수많은 직원들이 그에게 수시로 고마움을 표한다. 유병찬 선임은 여기에 고무돼 또 다른 현장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노력과 칭찬이 서로 호응해 만들어 낸 시너지 효과다.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특허를 따셨어요?" 유병찬 선임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그는 말한다. 자신의 업무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이라고. 어려움에 부딪치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더군다나 SIMPAC홀딩스 ENG사업부문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직원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 받기에 정말 좋은 환경 아닌가요?" 그가 되물으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더불어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적극적으로 개선 사항과 특허를 연결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유병찬 선임. 그의 아무진 손끝이 또 어떤 마법을 부릴지 사뭇 궁금해진다.



3박 4일간의  
맛집 탐방  
여행

오사카/교토로 떠나는  
**먹방투어**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민혜림 사원

신년호 위라벨 프로젝트에서는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통해 진정한 위라벨을 실천하는 심팩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위라벨 프로젝트의 주인공! 일과 삶 사이를 '여행'으로 균형을 맞춰가고 심팩인입니다. '여행'이라는 취미를 통해 삶에 동기를 부여하며 업무에 까지 활력을 되찾는다는 심팩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행 1일 차 **설렘을 안고 출발**

공항 - 도톤보리 - 숙소

김포공항에서 약 두 시간을 날아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열차 같은 라피트를 타고 30분 정도 달려 도톤보리에 도착했다. 먼저 오사카 시내에 있는 숙소로 도착해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글리코상을 보러 갔다. 도톤보리에 왔으면 글리코상 포즈로 사진을 찍는 것이 필수! 우리는 오사카 여행을 기념하는 인증샷을 재빨리 찍고 오사카에서 첫 번째 식사를 하러 갔다.

먹방투어를 열어줄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라멘이다. 일본 하면 역시 라멘이 유명하지 않은가! 일본 라멘의 일등공신인 이치란으로 향했다. 이치란은 1960년에 창업 후 5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 우리는 도톤보리 본점을 방문했다. 이치란 라멘은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라멘집으로 유명하다.



다른 돈코츠라멘과는 다르게 한국 입맛에 맞게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을 낸다. 돈코츠 라멘 다면 단일 메뉴로 맛, 기름진 정도, 마늘, 소스, 면 등의 재료를 입대로 고를 수 있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심팩인 여러분들도 오사카를 가게 된다면 첫 라멘 도전으로 이치란을 추천합니다. 이치란라멘은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여러 번 드세요(웃음)! 한국에서도 다양한 라멘집을 찾아볼 수 있지만 내 마음속의 고정픽은 역시 이치란 라멘이다.

이치란 라멘을 폭풍 흡입 후 향한 쿠시카츠집. 쿠시카츠는 일본식 꼬치 튀김을 말한다. 오사카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다. 쿠시카츠 식당 중에서도 1929년을 시작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지점들을 내고 있는 유명한 맛집 다루미를 선택했다. 우리나라 튀김과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튀김 옷이 얇고도 바삭하여 맥주 안주로 최고다. 고기, 생선, 야채 등 다양한 식재료로 튀김을 맛볼 수 있다.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쿠시카츠와 함께 제공되는 양배추! 쿠시카츠를 먹는 중간중간에 같이 먹으면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도, 쿠시카츠와는 오묘하게도 잘

어울리는 맛이다. 쿠시카츠에 앞서 일본 하면 또 맥주 아닌가? 한입 넘기는 순간 목구멍에서 바로 반응한다. 그래 바로 이 맛이지. 나마비루 스고이데스네! 그렇게 우리는 여행 1일 차를 맛있는 튀김과 생맥주로 마무리 지었다.

여행 2일 차  
자유로운 영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나라(사슴공원) - 아베노하루카스 - 숙소

다음 날 아침부터 향한 곳은 츠크멘집. '적시다'라는 의미의 츠크와 '면'을 뜻하는 멘으로 이루어진 이름처럼 따로 나오는 면을 직접 국물에 적셔서 먹는 방식이다. 차가운 물에 행귀내 탕글탕글 해진 면발을 육수에 푹 담가 호로록 먹으면 된다. 쫄깃하면서도 짹짹한 이 맛! 정통 국물 라멘과는 다른 매력이 느껴진다. 면을 다 먹으면 육수를 달라고 하면 된다. 처음에 준 육수에 새로 받은 육수를 부어 따뜻하게 마시면 정통 츠크멘 식사는 끝이다.

먹방투어지만 관광도 빼놓을 수 없기에 우리는 약 1,200마리가 넘는 사슴을 만날 수 있는 나라 사슴공원으로 향했다. 나라는 오사카 인근에 가까이 있는 중소형 도시로 오사카에서 전철로 한 시간 정도 이동하면 된다. 나라에 도착 후 사슴공원을 향해 100m쯤 올라가면 그때부터 사슴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눈앞에 바로 사슴들이 돌아다닌다. 하지만 사슴은 마냥 순한 동물은 아니라는 것! '센베이'라는 과자를 간식으로 즐



수 있는데, 과자를 드는 순간 귀신같이 냄새 맡고 달려들어 엉덩이를 사정없이 공격한다. 무서움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순 없으니 조금 어린 사슴들 곁에서 조심히 인증샷을 남겼다. 여기서 Tip! 사슴들이 워낙 많고, 풀어져있으니 발밑에 사슴 똥 조심은 필수다. (발밑을 항상 주시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 선택한 점심 메뉴는 규카츠. 규카츠는 소고기에 빵가루로 옷을 입히고 식용유에 튀긴 일본식 양식이다. 1인 개인화로에 본인이 원하는 굵기만큼 구워서 먹으면 된다. 주문 후 규카츠가 나오면 겉은 바삭하게 익혀있고, 속은 익히지 않은 빨간 생고기 그대로 나온다. 그 외에 계란과 마가 풀어져서 나오는데, 밥에 비벼 먹으면 꿀맛이다. 규카츠를 입맛에 맞게 익힌 후 맛을 한층 더 높여줄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먹으면 된다. 회가 아닌 소고기와 와사비라니. 풍미 가득한 소고기에 알싸하고도 오묘한 맛의 조화가 경이로웠다. 한국에 가서 지인들에게도 소고기와 와사비의 조합을 널리 알려야겠다.



이제, 야경을 즐기러 가볼까? 우리는 야경 명소로 유명한 아베노하루카스 300 전망대로 향했다. 우메다 야경도 봤지만 개인적으로 이곳이 더 아름다웠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부터 60층까지 이용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50초!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바로 야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펼쳐진다. 전망대 전체가 통유리 벽으로 되어 있어 오사카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낼 수 있었다. 반짝이는 야경은 그야말로 오늘 하루 견느라 지친 내 다리의 피곤함을 싹 가시게 해주는 선물 같았다. 누군가 오사카를 간다고 하면 야경코스 꼭 추천해 주려 한다.

# 오사카/교토로 떠나는 먹방투어

오사카의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출출해진 배를 달래러 오코노미야끼집으로 향했다. 역시 오늘 하루도 먹방으로 끝낸다. 미슐랭가이드에 소개된 오코노미야끼집을 향했으나 이미 만석.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른 곳으로 향했다. 철관 위에서 현란한 쇼가 끝나면 자리 바로 앞으로 딱끈딱끈 오코노미야끼를 가져다준다. 우리나라 이자카야에서 먹던 오코노미야끼는 저리 가라~ 정말 맛있고 고소하다. 안에 들어가 있는 신선한 해산물은 씹히는 맛이 기가 막힌다. 맥주 한 모금과 오코노미야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여행 3일 차  
또 다른 매력,  
교토에 흠뻑 취하다



구로몬 시장 - 교토(치쿠린) - 난바 - 숙소

교토로 넘어가기 전 오사카에서 마지막 코스. 그곳은 바로 이른 아침부터 향한 오사카의 로컬 재래시장인 '구로몬 시장'이다. 구로몬 시장을 여는 곳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이곳은 다니는 걸음마다 맛집이 있는 곳. 딸기 모찌, 대게 그라탕 등 웬만한 일본 먹킷리스트 음식들은 이곳에서 다 먹어볼 수 있다. 오사카에 방문한다면 즐길 거리도 먹을거리도 풍부한 구로몬 시장에서 꼭 한번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구로몬 시장에서 한껏 배를 채운 후, 우리나라 경주를 연상케 하는 교토로 이동!



한참을 달려 아라시야마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내리자 시골의 기운이 느껴졌다. 오사카의 전철역과도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아라시야마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곳은 도게츠교다. 비가 많이 와 안타깝게 만개한 벚꽃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일본 특유의 멋스러움이 가득한 다리와 함께 흘러가는 강을 보니 한적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힐링을 하기에 좋았다.

머리와 가슴이 맑아진 기분으로 도게츠교를 지나 점심으로 소바를 먹기로 했다. 우리가 간 곳은 도게츠교가 한눈에 보이는 2층 소바집. 운 좋게 전망이 좋은 자리로 안내받아 눈이 행복한 식사였다. 베스트 메뉴인 소바정식을 주문했다. 가지런하고도 정성이 담긴 음식에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 것도 잠시. 장국에 메밀을 담가 먹으니 교토까지 오기까지의 힘들음을 다 녹여주는 것 같았다. 장이 짜지도 않고, 깊은 맛이 우려나며 메밀도 정말 맛있었다. 우리나라 소바와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다. 같이 나온 튀김도 바삭바삭하니 입맛을 돋워주는 맛이였다.

점심을 배불리 먹고 아라시야마의 명소, 치쿠린 대나무숲으로 향했다. 여기서 Tip! 치쿠린 대나무숲은 무료입장이나 안심하고 사람들을 따라 맘껏 구경하면 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나무에서 산책이라니 완벽한 코스이다. 바람과 함께 코 끝을 간질이는 대나무 향을 맡으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오솔길을 따라 길게 뻗은 대나무들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바람에 살랑이는

대나무 잎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힐링이 되어서 참 좋았던 치쿠린. 일본의 고풍스러운 감성과 교토를 느껴보고 싶다면 한 번쯤 방문하기 좋은 곳이다.



여행 4일 차  
아쉽지만 위대한 마지막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만찬을 즐기 위해 야끼니쿠집으로 향했다. 일본에 오면 와규를 먹어주는 것이 당연지사! 하지만 우리는 야끼니쿠를 먹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했다.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드디어 입장. 화로에 살짝 굽고 입에 넣는 순간 기다리는 동안에 짜증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역시 소고기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화로에 직접 구워 먹는 소고는 입에서 정말 살살 녹았다. 우설을 도전해보리라 했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품절되어 먹어보지는 못했다. 아마 다음에 또 오라는 뜻이었나 보다.

야끼니쿠집을 마지막으로 3박 4일간 우리들의 위대한 먹방투어는 끝을 맺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일터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꿀 같은 휴식을 즐기니 재충전이 된 기분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통해 얻은 소중한 순간들이 잊히지 않도록 항상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기로 또 한번 다짐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듯, 나도 또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



저와 함께한 여행은 어떠셨나요? 제 글을 보니 여러분들도 잠시나마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웃음). 심팩인 여러분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균형 잡힌 삶을 통해 나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위라벨 프로젝트 제 3탄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 지극히 주관적인 맛집 BEST 5

### 1 이치란라멘 도톤보리점 (一蘭 道頓堀店本館)

주소: Osaka-fu, Osaka-shi, Chūō-ku, Souemonchō, 7-18 1F  
전화번호: +81 6-6212-1805

맛 ★★★★★ 위치 ★★★★★  
청결도 ★★★★★☆ 가격 ★★★★★☆

한국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라멘 맛! 일본에서 첫 라멘을 경험한다면 단연코 이치란라멘을 추천드립니다!

### 2 타케루(タケル)

주소: 3丁目-8-26 Nipponbashi, Naniwa-ku, Osaka-shi, Osaka-fu  
전화번호: +81 6-6635-2929

맛 ★★★★★ 위치 ★★★★★☆  
청결도 ★★★★★☆ 가격 ★★★★★☆

바삭한 규카츠를 맛 보고 싶다면 타케루로! 밥도둑 계란 마밥도 강추 드립니다

### 3 요시무라 (嵐山よしむら)

주소: Kyoto Prefecture, Kyoto, Ukyō-ku, 嵐山渡月橋北詰西二軒目  
전화번호: +81 75-863-5700

맛 ★★★★★ 위치 ★★★★★☆  
청결도 ★★★★★☆ 가격 ★★★★★☆

도게츠교를 바라보며, 맛있는 일본식 소바를 즐길 수 있는 치쿠린 맛집! 전망, 맛 둘다 즐기고 싶다면 요시무라로~

### 4 치보(千房)

주소: Osaka Prefecture, 大阪市中央区道頓堀 1-5-5 1~6階  
전화번호: +81 6-6212-2211

맛 ★★★★★ 위치 ★★★★★☆  
청결도 ★★★★★☆ 가격 ★★★★★☆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맥주와 최애궁합. 일본 현지에서 먹는 오코노미야끼를 즐겨보세요

### 5 야끼니쿠 호르몬 타카라 (焼肉ホルモン 宝)

주소: 11-28 Nanbasennichimae, Chūō-ku, Osaka-shi, Osaka-fu  
전화번호: +81 6-6632-0003

맛 ★★★★★☆ 위치 ★★★★★☆  
청결도 ★★★★★☆ 가격 ★★★★★☆

그동안 먹어본 와규는 저리가래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천상의 맛. 단연코 인생고기맛집

#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편지

가정의 달을 맞아 서로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합니다.



(주)SIMPAC 고객센터팀 정제린 과장

To.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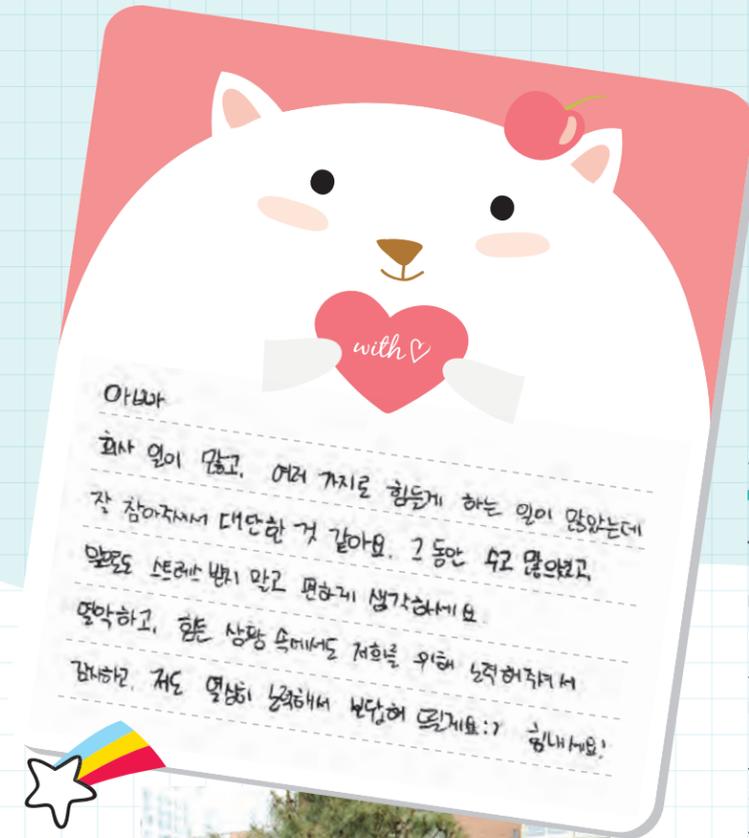
다혜야, 안녕~

다혜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빠야.

우리 다혜가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도 직접 만들어주고 편지도 예쁘게 꾸며서 줬었지~  
아빠가 다혜한테 너무 고마워서 답장 편지를 썼어. 우리 딸 덕분에 오랜만에 손편지를 받아본 거 같아. 아직은 우리 딸이 많은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짧은 글에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받았어. 고마워 다혜야~

다혜야, 아빠와 엄마는 우리 다혜와 동생 현빈이가 있어 참 행복해. 그리고 다혜와 현빈이가 멋진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 위해 어른이 되어가는 준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단다. 엄마, 아빠는 다혜와 현빈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응원하는 부모님이 될게. 그러니 우리 다혜도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챙겨주고 사랑해야 해~

그럼 아빠 편지는 이제 여기서 끝~ 우리 딸!  
아빠가 많이 사랑해 ♥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정설희 과장

To. 사랑하는 아들 종용아!

네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참으로 아빠가 많이 놀아 주지도 못하고,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거 같아 아쉽기도 하면서 많이 미안하구나.

초, 중, 고등학교를 올라가고부터는 네가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너와의 대화가 참으로 즐겁다. 이제는 너에게 아빠의 생각을 허물없이 하여도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자꾸만 대화하고 싶어진다. 이제는 네가 많이 바빠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어 아빠는 참 아쉽단다.

아빠는 회사 일이 많아져서 바빠기도 하지만 요즘은 네가 많이 걱정된다. 국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무척이나 수척해진 너의 얼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가끔 너에게 내가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하는 후회도 생긴다.

하지만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아빠도 회사일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모두 특히 너에게 훌륭한 아빠가 되고 싶다. 우리 서로 힘들지만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많이 힘들더라도 열심히 잘 헤쳐 나가자.

울 아들, 종용아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SIMPAC홀딩스 전략구매팀  
김예원 사원에게**

예원 사원님! 매일 보는 사이인데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많이 어색하네요.

모순적이게도 친한 사람끼리 하는 표현이 더 부끄럽지만, 오늘은 용기 내서 예원 사원님에게 편지를 써봐요~

벌써 우리가 만난 지도 2년이 되었네요. 저는 2남 1녀 장녀로 여자 형제가 없었는데 언니와 매일 만나며 친구나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지내다 보니 처음으로 언니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2년 동안 서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좋은 일은 같이 기뻐해 주고, 힘든 일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제가 받은 위로만큼 저도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서 항상 언니의 얘기를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고 있어요. 나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잔잔하고 든든하게 옆에 있어 줘서, 심적으로 많은 의지가 됩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살 한살 나이를 먹을수록 인연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고, 좋은 관계로 지속되는 건 더 특별하고 감사한 일이니까! 우리의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배려 많이 해주고 웃어주며 하루하루 알차게 좋은 시절 함께 보내기로 해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하는 예원 언니의 생일이네요! 이 기회를 삼아 생일을 널리 축하합니다! 생일을 맞아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원 사원님은 생각이 많은 날은 잠에 잘 못 든다거나 잘 때 예민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잠은 몸과 피부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의 깊은 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옷을 준비했어요!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생일 너무나 축하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요~ 항상 고마워요♥

From SIMPAC홀딩스 전략구매팀 김다희 사원



**SIMPAC홀딩스 전략구매팀  
김다희 사원에게**

나의 짝꿍 다희야 안녕! 같은 팀인데 서로 편지 쓰는 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

글 솜씨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조금 걱정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일한지도 벌써 2년이 되었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 2년 전 딱 이맘때 동기도 없이 나 홀로 입사하게 되어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다희 덕분에 적응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시는 곳도 가까워서 회식 끝나고 같이 택시 타고 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도 했던 기억도 나고, 같이 신입사원 연수도 다녀오고, 태국 여행도 같이 다녀오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 함께 찍은 셀카들 보면서 그 동안 우리 참 즐거운 시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2년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회사에서 만난 인연이지만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얻게 된 것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소중한 인연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From SIMPAC홀딩스 전략구매팀 김예원 사원



평소 고마움을 전하고 싶거나 칭찬해 주고 싶었던 직장 동료 혹은 선배에게 편지를 작성해보세요. 사보를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신청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작성하시는 분께 선물지원비를 제공해드립니다!

#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봄을 한껏 즐긴 심팩인들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주)SIMPAC 설계3팀 김영일 과장

포켓몬과 함께 떠나는 모험 속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송도의 포켓몬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피카츄와 친구들을 본 이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동심으로 돌아간 저는 많은 인파 속에서 '삐까, 삐까~' 추라고 외치며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옆에 있던 와이프는 두 명의 아들을 키운다며 웃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심팩인 여러분도 올해 피카츄처럼 짜릿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SIMPAC메탈 인사총무팀 선광규 과장

우리 딸기체험농장 다녀왔어요~

따사로운 봄 햇살을 쬐며 봄의 상큼함을 담은 딸기 따기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더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 가족이 딸 흘리며 수확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초코 풍류와 컵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녹인 초콜릿에 딸기를 찍고 장식을 해서 계속 만들면 첫째는 만들자마자 자기 입으로 가져가고, 둘째 이들은 만들지는 않고 녹인 초콜릿을 먹기 바쁘고 집사람은 사진 찍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했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먹고 즐기는 딸기 따기 체험이었습니다^^



© 2018년 SIMPAC STORY '사진으로 말해요' 코너에서 SIMPAC인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매 호 해당 주제에 맞춰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사보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이미리 사원

올해의 첫 봄나들이는 한강으로!

각자 바쁜 일상 속에 자주 만나지 못하던 친구들을 만나 한강을 다녀왔습니다. 한강에 도착하니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빛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수도도 떨고 피크닉 나오면 항상 즐겨먹던 솜사탕까지 먹으니 친구들과 함께 학교 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 한강은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긴 봄나들이였습니다.



SIMPAC메탈 당진공장 생산팀 김보람 사원

가족과 함께 단양으로 고고!

햇살은 짙평, 봄바람은 시원하게 불던 4월 첫날 단양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조금 이른 봄 여행이라 활짝 핀 벚꽃은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전망 좋은 카페에 앉아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확 트인 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다른 분들을 보며 제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대리만족도 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상을 벗어나 가족들과 즐거운 봄나들이를 하고 왔습니다.



## CONGRATULATIONS!

결혼을 축하합니다 HAPPY WEDDING

2018년 3월 10일  
(주)SIMPAC 해외영업팀 손영준 대리



한없는 '고객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고객사에서 평생의 짝을 만나 영원한 감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 평생의 고객은주 씨! 긴 출장을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내 비록 잔고장이 더러 있을지 언정 평생의 무상보증기간을 약속드려요!

2018년 4월 22일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이경현 사원



지방에서 올라와 모든 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시절에 만나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저를 믿어준 아내와 결혼이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아끼며 잘 살자! 많이 사랑한다. 남승영 ♥

탄생을 축하합니다 WELCOME BABY

2018년 5월 14일  
SIMPAC메탈 포항1공장 생산팀 조영문 대리 둘째 아들 조현준 군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에 우리 가족에게도 소중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첫째 예은이를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둘째 현준이까지 태어나게 되어 행복이 커진 만큼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축복에 힘입어 우리 예은이와 현준이를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준이를 열 달 동안 품고, 엄청난 산고를 감내해준 나의 아내 애리야. 너무 고생 많았고 나에게 예쁜 두 아이들을 안겨줘서 고마워. 항상 내가 사랑해~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1ST BIRTHDAY

2018년 3월 21일  
(주)SIMPAC 고객지원팀 백재현 사원 아들 백도윤 군



도올이가 처음 울음을 터뜨린 순간, '진짜 부모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기적 같은 첫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힘듦, 괴로움 등 세상의 모든 감정을 느끼며 숨 가쁘게 달려온 일 년, 벌써 같으면서도 겨우 일 년이 된 도올이의 삶.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